

2009. 9. 22

세계 스테인리스 산업의 구조 변화와 기업의 전략 트렌드

철강전략연구실
이금용

Executive Summary

세계 스테인리스 산업의 구조 변화와 기업의 전략 트렌드

● 세계 스테인리스 수요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예상되나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

- 스테인리스 경기는 금년을 저점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2011년에 과거 추세선에 복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 4.6%의 안정 성장 예상
- 그러나 수요를 초과하는 설비증설로 인해 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어 시장확보를 위한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

● 전통적 수입 시장의 소멸로 수출국들 어려운 환경에 직면 예상

- 주요 수입국의 자급화 확대에 따라 교역량 점차 축소 전망
- 중국, 동남아, 미국 등 수입국의 설비증설로 수입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시장이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
- 기존 수입 시장 소멸로 새로운 성장 시장, 성장산업 발굴 노력 필요

● 경쟁 패러다임 변화로 기업들의 전략도 ‘성장경쟁’에서 ‘판매경쟁’으로 바뀌게 되어 향후 시장 확보가 더욱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로 부각

- 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국들 현지에서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가며 현재 유럽 밀이 동남아와 미국에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 중
- 또한 시장 확보를 위해 전방통합을 가속화 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 밀들은 직영 코일센터를 확대하고 강관 등 제조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

● 구조조정 및 기업간 통합 추진을 통한 과잉 능력 해소

- 주요 유럽 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, 시장 리더인 TKS와 A-Mittal간 통합을 예견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으며 이 경우 큰 폭 설비 감축 필요

● 녹색성장과 관련한 고기능 제품 개발 경쟁

- 에너지, 수자원, 환경관련 고성장 부문에 필요한 고기능성 제품 개발경쟁
- 300계 대체용 super ferritic이나 duplex강종 등은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품질에서 기존 경쟁 강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



I . 스테인리스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.....	1
II . 세계 스테인리스산업의 경영환경 변화.....	2
III . 주요 기업들의 전략트렌드 변화	5
IV . 종합 의견	8

I. 스테인리스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

1. 금융위기와 세계적 수급 불균형이 구조 변화 촉진

● 스테인리스산업의 Fundamental의 변화 초래

- 세계 스테인리스 시장, 균형에서 공급과잉 상황으로 전환
 - 스테인리스산업은 오랜 기간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불균형을 초래
 - 이 같은 불균형으로 판매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초래
- 세계 스테인리스 교역량의 감소 및 수입 시장 축소 초래
 - 주요 수입국들의 자급화 확대로 수입량 크게 감소

● ‘양적 성장경쟁’ 에서 ‘판매경쟁’ 으로 경쟁 패러다임 변화

- 경쟁력의 우위 확보의 원천, 대량생산에서 시장 확보로 전환
 - 향후 양적 성장경쟁 보다는 시장 확보경쟁이 더욱 중요한 경쟁 우위 변수
 - 공급과잉 시대에는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 보다 중요
- 경쟁의 주도권,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전
 - 과거 세계 스테인리스산업의 리더는 유럽이었으나 향후 주도권이 아시아, 특히 중국으로 이전

< Fundamental과 Paradigm 변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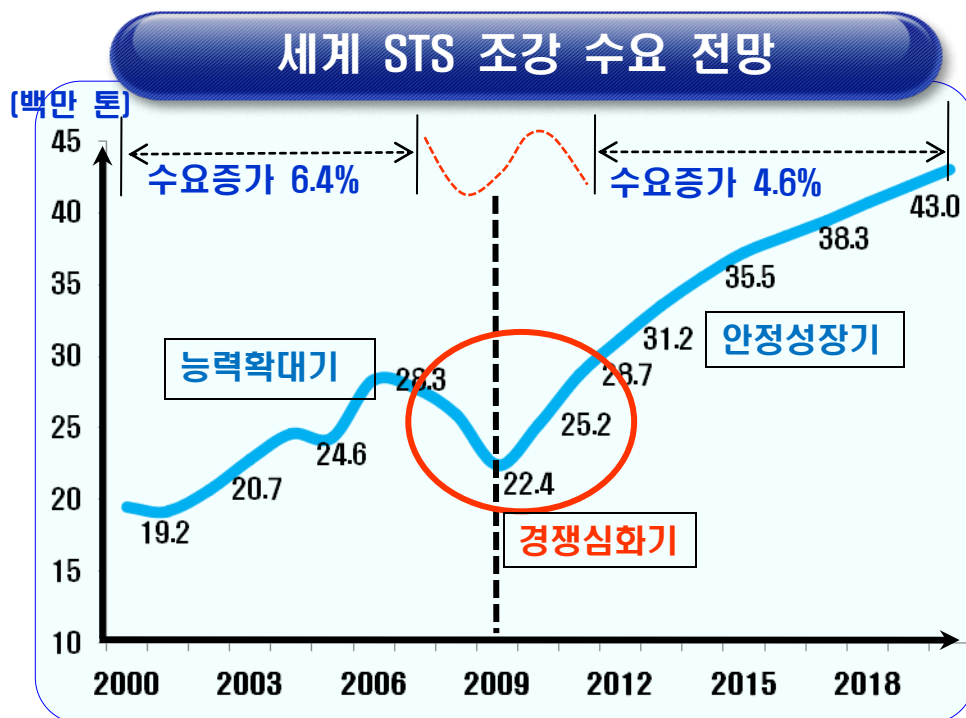
Ⅱ. 세계 스테인리스산업의 경영환경 변화

1. 세계 스테인리스의 장기 수요 전망

● 세계 수요 점진적 회복 불구 공급과잉으로 어려움 직면

○ 세계 수요, 2009년을 저점으로 점진적 회복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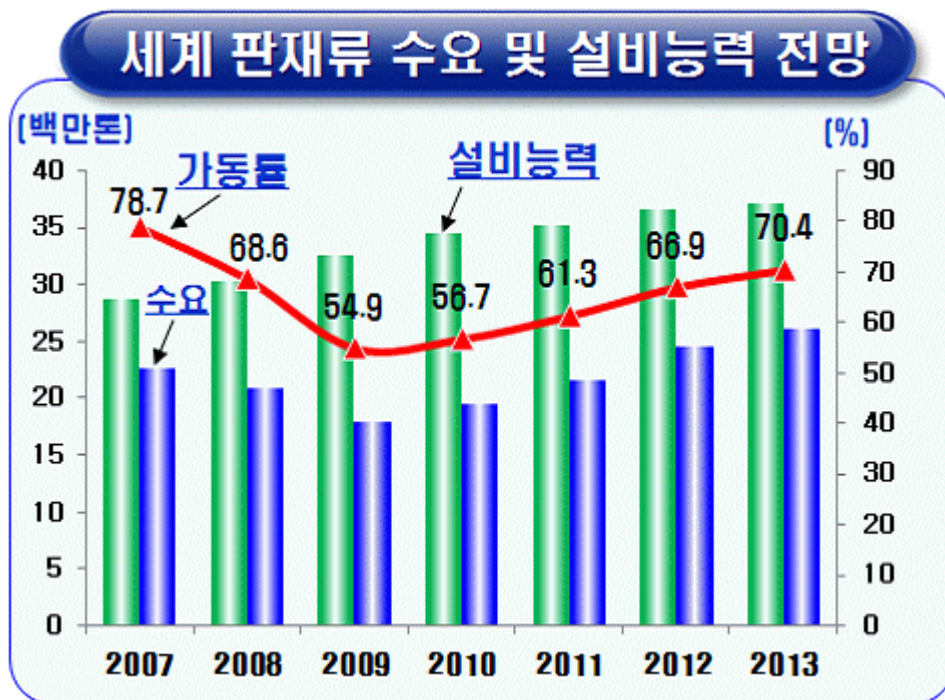
- 수요회복 불구 세계적 설비과잉 문제로 향후 2년~3년간은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회복 지연
- 스테인리스산업은 2000년 이후 연 6.4%의 고성장을 보여왔는데 이 시기 세계 설비능력이 크게 확장
- 향후 2~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수요는 장기 추세선으로 복귀하면서 연 4.6%의 안정적 성장 예상



자료: SMR, POSRI (2009.9)

● 한편 세계 스테인리스 판재류의 가동률은 향후 3년~4년간 50%~60% 대에 그칠 전망

- 수요를 초과하는 설비능력 보유로 인해 저가동률 상황 직면
 - 저가동률 상황하의 기업들, 생산확대 유혹에 시달리면서 물량해소를 위해 판촉, 고객확보, 가격인하 등 마케팅활동 강화
 - 판재류 조강능력은 2008년 3,000만 톤에 생산은 2,080만 톤으로 가동률은 68.6% 기록
 - 금년도 가동률 54.9%를 저점으로 향후 점진적 상승 전망



자료: CRU Quarterly (2009.8)

2. 중국, 경쟁적 설비확장으로 세계 공급과잉의 진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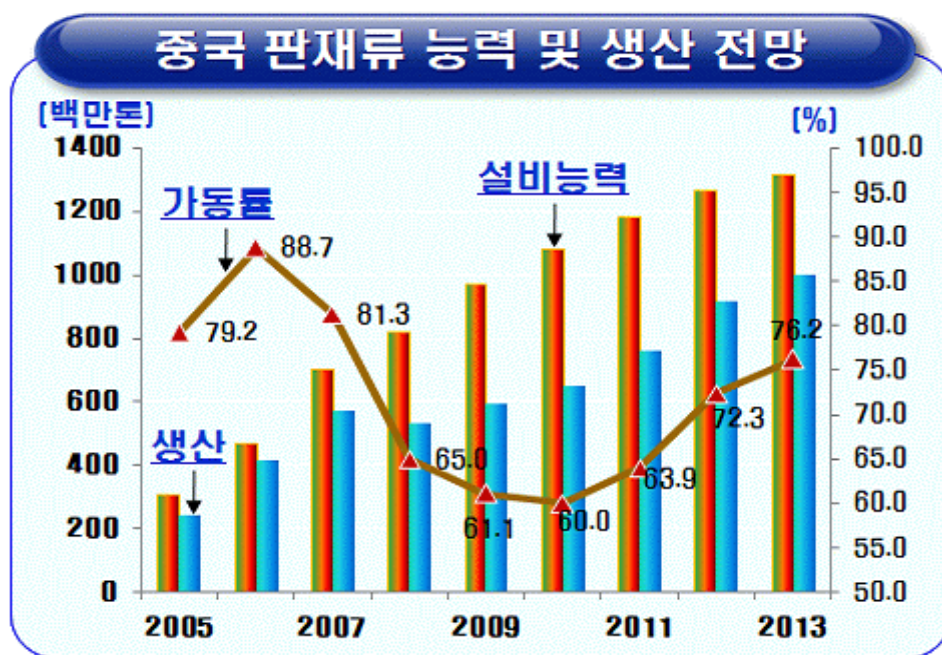
● 조강능력, 2001년 100만 톤에서 2009년 1,200만 톤으로 급증

- 중국, 수요의 고성장 불구, 수요를 초과하는 경쟁적 설비 증설로 중국 내는 물론 세계적 공급과잉 원인 제공
 - 현재 계획 중인 설비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향후 3년~4년 내 조강능력이 1,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연구기관들 전망
 - 신증설 설비 완공 시 조강 규모 100만 톤 이상의 밀이 8개, 신규 진입 밀이 8개 이상 예상

● 판재류의 설비과잉 해소에 적어도 5년 소요

○ 중국의 가동률, 2010년 최저점으로 향후 어려움 예고

- 중국의 판재류 조강능력은 2008년 819만 톤, 2009년 969만 톤으로 CRU에서 추정하고 있으며, 판재 조강생산은 2008년 532만 톤, 2009년 592만 톤으로 예상, 가동률은 2008년 65%, 2009년 61%로 전망
- 그러나 장기적으로 설비증설은 정체되는 반면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5년 이후에나 균형 회복 전망



자료: CRU Quarterly (2009.8)

3. 수입 시장의 ‘증발’로 전통 수출국 어려움 직면

● 중국, 동남아, 미국 중심의 100만 톤 냉연 순 수입 시장 소멸

- 주요 수입국들 자국 내 설비 신증설로 자급률을 확대하면서 향후 수입량이 크게 감소될 전망
- 스테인리스는 수출국이 한정되고 제품에서 차지하는 운임 비중이 낮아 교역에 적합한 품목으로 높은 수출 비중 유지
- 그러나 역내 교역을 제외하면 중국, 동남아, 미국 등이 큰 수입 시장이나 이들 국가가 설비 신증설 추진
- 중국의 경우 2007년 냉연 순 수입량이 51만 톤에서 2013년 30만

톤의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고, 동남아도 2007년 순수입량이 38만 톤에서 2013년 4만 톤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

- 미국은 2007년 냉연 순 수입량이 10만 톤에서 2013년 5만 톤으로 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듦 전망

○ 따라서 주요 수출국들은 향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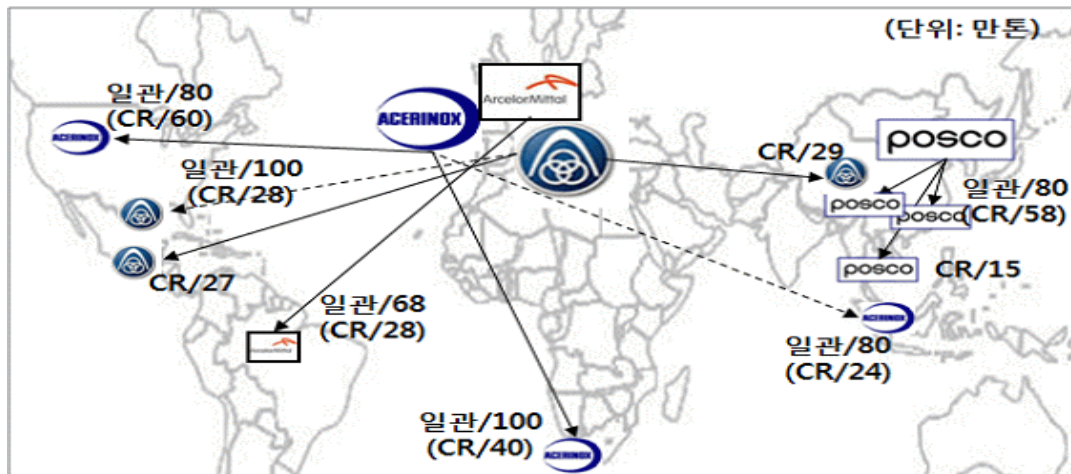
- 수출국들 향후 미개척지역이나 미래성장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발에 힘을 경주할 전망

Ⅲ. 주요 기업들의 전략트렌드 변화

● 현지 생산·판매 체제 강화

- 향후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 추진
 - 선진 밀, 중국 시장의 설비과잉으로 인해 진출을 회피하고, 그 대신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과 미주 시장에 진출 추진
 - 스페인의 Acerinox는 일본 일신제강과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에 열연 코일 80만 톤, 냉연강판 20만 톤 체제의 일관제철소인 Bahru STS (Acerinox 57%, 일신 57%)를 건설 중
 - TKS는 미국 알라버마에 100만 톤 체제의 일관 제철소 건설 추진 중
- Acerinox가 가장 활발하게 현지생산 거점화 전략 추진
 - 4대륙에 걸쳐 각각 1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하거나 건설 추진 중이며 또한 현지 판매 채널도 확대 중

〈 주요 밀의 해외 생산 거점 〉



● 전후방 통합의 가속화

- 원료의 중요성 부각으로 주요 밀들 원료 개발 투자 강화
 - 원료가격의 급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주요 밀들, 원료의 안정적 조달과 경제적 조달을 목표로 원료 부문 투자 확대
- 시장 확보의 중요성 부각으로 유통/가공의 직계화 추진과 더불어 제조 부문까지 사업영역 확대
 - 유통부문은 안정적 수주 기반 구축과 고객 만족도 제고, 고객 lock-in 전략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선진 밀들이 직영 코일센터 진출
 - 또한 captive 수요의 확보와 더불어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파이프 생산이나 최종 제품 생산에까지 사업 확대

〈 주요 밀의 수직 통합화 〉

	원료	유통 및 가공(직계)	제품 제조
효과	• 안정/경제적 조달 • 최적 믹스	• 안정 수주 기반 구축 • 만족도 제고 및 Lock-in	• Captive 수요 확보 • 부가가치 확대
사례	▪ Outokumpu :Cr ▪ Columbus: Cr ▪ A-Mittal: Mo ▪ NSSC: Ni ▪ Nippon Yakin: Ni	▪ TKS: 12 개 ▪ Outo: 7 개 ▪ A-M: 15 개 ▪ ACX: 22 개 ▪ NSSC: 4 개 ▪ Nisshin: 7 개	▪ TKS: 파이프 ▪ A-M: 파이프(일반, 배기계) ▪ Outo: 파이프(heavy), 프랜지 ▪ NSSC: 파이프 ▪ Nisshin: 파이프, 프랜지, 욕조, 주방기구, 호일

● 구조조정 및 기업간 통합 추진

-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필요성 공감으로 유럽 밀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예상
 - 유럽 밀들 과거 구조조정과 통합 경험이 많아 이번에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는데, 과거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1970년대 21개사에서 1980년대 11개사, 1990년대 6개사, 현재 4개사로 축소
 - 회사 수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에 의한 설비 감축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
- 유럽 밀간 통합 시 EU의 독과점금지법과 자본 조달이 변수
 - 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40%를 초과할 경우 독과점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형 밀 간의 통합 시 설비의 폐쇄 또는 매각 필요

- 예상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선두주자인 TKS와 Arcelor-Mittal의 대등한 합병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경우 160만 톤의 설비 축소가 필요

● 최근 녹색성장과 관련한 고기능 제품 개발에 역점

- 녹색성장과 관련한 3대 유망 분야는 에너지, 수자원, 환경관련 산업
 - 에너지 분야로는 석유화학플랜트, 발전설비, 석유 및 가스 채굴, 선박 및 해양 분야로 향후 성장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
 - 또한 세계적 물 부족 심화로 담수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며 아울러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CO₂ 및 유해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설비나 수질오염방지 설비에서도 높은 수요증가 예상
- 특히 이들 분야는 duplex, super alloy, super ferritic 등 고내식성, 고급강종 수요의 큰 폭 증가 예상
 - Outokumpu는 duplex를 특화 시켜 현재 세계 시장의 58%를 장악하고 있고, TKS, NSSC 등은 300계 대체용 super ferritic 강종에 집중하여 연구개발 및 수요창출에 노력 강화
 - 300계 대체용 super ferritic이나 duplex 강종의 경우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품질에서 기존 경쟁 강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하여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
 - 이러한 추세로 인해 향후 400계 및 duplex 강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~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00계 6.3%, duplex는 19.3%에 이를 전망

IV. 종합 의견

- 세계 스테인리스 수요는 금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수급불균형으로 본격 경쟁시대 돌입 예상
 - 2011년경 과거 추세선 복귀, 중장기적으로 연 4.6%의 안정성장 예상
 - 특히 중국은 설비능력을 상회하는 대규모 설비증설이 이루어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며 경쟁적으로 증산 시 세계 가격회복 지연
- 주요 수입국의 설비 신증설로 100만 톤 규모의 냉연 순수입 시장 소멸
 - 과거 주요 순수입국이던 중국이 설비확대로 2011년 이후 순수출국으로 전환
 - 동남아와 미국의 순수입 규모 큰 폭으로 감소
 - 기존 수입 시장의 소멸로 새로운 성장 시장 발굴 노력 필요
-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환경변화로 기업들의 전략 방향도 바뀌고 있는데 향후 현지 생산·판매 강화, 전후방 통합, 구조조정 및 기업간 통합, 고기능 신제품 개발로 전략을 집중
 - 주요 수출국들, 시장이 있는 곳에 현지 생산 거점 구축
 - 원료 투자와 함께 시장 확보를 위해 유통, 가공, 제품제조 분야로 사업영역 확대
 - 유럽 밀 중심으로 대등한 통합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예상
 - 녹색성장과 관련한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수요개발 확대와 이 부문에 대응한 신제품 신강종 개발에 주력 필요

이금용 (e-mail: kylee@posri.re.kr)

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.